
주요국 예산안 - 캐나다

2019. 4.

연구책임자

박한준 센터장

강희우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신아 전문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2
2. 예산기조	4
3. 예산안 내용	5
가. 세입	5
나. 세출	8
4. 주요 재정정책	11
가. 중산층에 대한 투자	11
나. 재정건전화	13

캐나다

□ FY2019-20 : 2019.4~2020.3

□ 출처

○ Budget 2019 (2019.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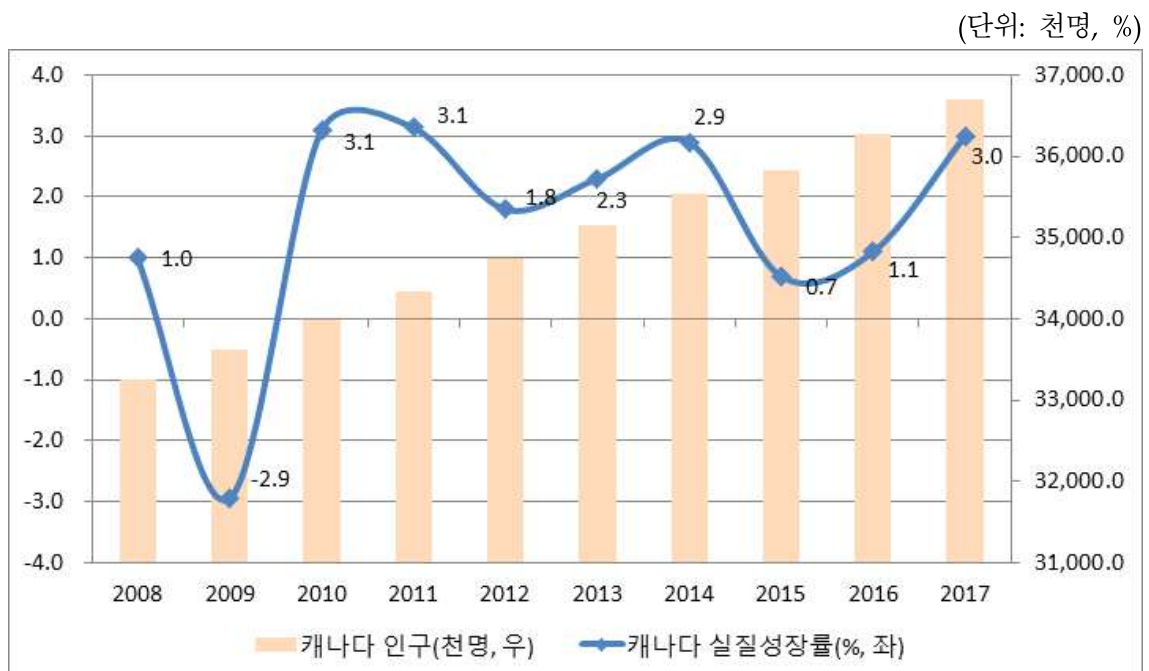
□ 환율 : 1캐나다달러 = 848.95원 (2018년 평균)

□ 경제규모 : 2018년 경상 GDP 1조 7,761억 달러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 2018년 기준 65.8%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약 80.8%)

□ 인구 : 2017년 약 3,671만명

□ GDP 성장률 및 인구추이 :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9년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은 각각 1.8%, 3.4%,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5.7%, 1.9%로 전망
- (재정전망) FY2019-20 재정적자는 198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0.9%)로 전망되며, FY2019-20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 비율은 30.7% 수준으로 전망

□ 예산기조

- 2019 예산안은 「중산층을 위한 투자(Investing in the Middle Class)」를 주제로, 캐나다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에 투자하는 정책을 포함
- 투자(Investing in the Middle Class), 발전(Building a Better Canada), 조화(Advancing Reconciliation), 변화(Delivering Real Change)에 대한 4개 주제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 제시

□ 세입 및 세출

- (세입) FY2018-19 총세입은 경제성장세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6.7% 증가한 3,322억 캐나다달러, FY2019-20 총세입은 3,388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4.7%)로 전망
- (세출) 총세출은 FY2018-19 전년대비 5.1% 증가한 3,471억 캐나다달러, FY2019-20 3,556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중산층 확대를 위한 투자) 2019년 캐나다 예산안에서는 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하며 주거, 직업훈련, 의약품 보조 등에 대한 정책 제시
- (재정건전화) 2019년 캐나다 예산안에서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비율을 향후 FY2023-24까지 각각 GDP 대비 0.4%, 28.6% 수준으로 감소할 계획을 발표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8. 2. 26.	FY2017-18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C) 발표	2018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8. 4. 23.	경제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April 2018) 발표	
2018. 9. 27.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8 발표	2018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8. 10. 19.	결산보고서(Annual Financial Report) 발표	
2018. 10. 23.	경제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18) 발표	
2018. 10. 24.	FY2018-19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A) 발표	
2018. 11. 21.	가을경제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 발표	
2019. 2. 26.	FY2018-19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B) 발표	2019년 2월 1호 재정동향
2019. 2. 12.	Economic and Fiscal Monitor-February 2019 발표	2019년 2월 2호 재정동향
2019. 3. 19.	2019 예산안(Budget 2019) 발표	2019년 3월 2호 재정동향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실질 GDP 성장률) 2019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18년 가을경제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 이하 FES)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된 1.8%로 전망

○ 2018~2023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2018년 FES 전망과 동일한 1.8%로 전망

□ (명목 GDP 성장률) 2019년 명목 GDP 성장률은 2018년 FES 전망 대비 0.6%p 하향 조정된 3.4%로 전망

□ (실업률) 2019년 실업률은 2018년 FES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된 5.7%로 전망

○ 2018~2023년 평균 실업률은 2018년 FES 전망 대비 0.1%p 하락한 5.9%로 전망

- 2015.11월 이후 약 9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새 일자리의 3/4은 full-time positions)되었으며, 캐나다 실업률은 지난 40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 중임

□ (물가상승률) 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 FES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된 1.9%로 전망

○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2.0%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표 1> 캐나다 경제전망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8-23
실질GDP 성장률	2018 FES	1.9	1.9	1.6	1.6	1.9	1.9	1.8
	Budget 2019	1.9	1.8	1.6	1.7	1.9	1.9	1.8
명목GDP 성장률	2018 FES	3.9	4.0	3.3	3.7	4.0	3.9	3.8
	Budget 2019	3.8	3.4	3.5	3.7	3.9	4.0	3.7
실업률	2018 FES	5.9	5.8	6.0	6.1	6.0	6.0	6.0
	Budget 2019	5.8	5.7	5.9	6.0	6.0	5.9	5.9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18 FES	2.4	2.1	1.9	1.9	2.0	2.0	2.0
	Budget 2019	2.3	1.9	2.0	1.9	2.0	2.0	2.0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2019.3.19.) Table A2.1 일부 발췌

나. 재정전망

- (재정수지) FY2019-20 재정적자는 198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0.9%)이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FY2023-24에는 98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0.4%)를 기록할 전망
- (총세입) FY2019-20 총세입은 전년대비 66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3,388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FY2023-24까지 GDP 대비 총세입 비율은 14.8% 수준으로 유지
- (총세출) FY2019-20 총세출은 전년대비 85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3,556억 캐나다달러 규모로 전망
 - FY2019-20 프로그램 지출은 3,294억 캐나다달러, 이자지출은 262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연방채무)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¹⁾ 비율은 FY2019-20에는 30.7%(7,054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3-24 28.6%(7,617억 캐나다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1) 공식채무지표로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를 사용하며, 연방채무는 이자지급채무와 외상매입 등을 포함한 부채에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표 2> 캐나다 재정전망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7-18	예상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총수입	311.2	332.2	338.8	351.4	366.7	380.7	395.5
총지출	330.2	347.1	355.6	368.2	378.4	389.8	402.2
프로그램지출	308.3	323.5	329.4	339.7	348.3	358.4	369.1
이자지출	21.9	23.6	26.2	28.5	30.2	31.4	33.2
위험조정			-3.0	-3.0	-3.0	-3.0	-3.0
재정수지	-19.0	-14.9	-19.8	-19.7	-14.8	-12.1	-9.8
연방채무 ¹	671.3	685.6	705.4	725.1	739.8	751.9	761.7
GDP 대비 비중(%)							
총수입	14.5	14.9	14.7	14.8	14.9	14.8	14.8
프로그램지출	14.4	14.6	14.3	14.3	14.1	14.0	13.8
이자지출	1.0	1.1	1.1	1.2	1.2	1.2	1.2
재정수지	-0.9	-0.7	-0.9	-0.8	-0.6	-0.5	-0.4
연방채무	31.3	30.8	30.7	30.5	30.0	29.3	28.6

주: 1. FY2018-19 연방 채무 전망치에 기타 포괄 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 포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2019.3.19.) Table A2.4 일부 발췌

<표 3> 2018년 FES 이후 조정내역

(단위 : 십억 캐나다달러)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18 FES 재정수지(위험조정 포함)¹⁾	-18.1	-19.6	-18.1	-15.1	-12.6	-11.4
2018 FES 재정수지(위험조정 제외)	-15.1	-16.6	-15.1	-12.1	-9.6	-8.4
2018 FES 이후 경제 및 재정적 요인에 의한 조정	5.9	4.8	4.7	3.7	4.1	4.6
2018 FES 이후 정책 및 Budget 2019 투자에 의한 조정	-5.6	-5.0	-6.3	-3.3	-3.6	-2.9
재정수지	-14.9	-16.8	-16.7	-11.8	-9.1	-6.8
위험조정		-3.0	-3.0	-3.0	-3.0	-3.0
Budget 2019 재정수지	-14.9	-19.8	-19.7	-14.8	-12.1	-9.8

주: 1) -는 재정적자요인의 증가, +는 재정적자요인 감소를 의미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2019.3.19.) Table A2.2 일부 발췌

2. 예산기조

- 2019년 예산안은 「중산층을 위한 투자(Investing in the Middle Class)」를 주제로, 캐나다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에 투자하는 정책을 포함
 - 캐나다 정부는 중산층 강화와 캐나다의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2019년 예산안에서도 중산층 확대를 위한 주거, 일자리, 교육, 보건의료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
 - 이번 예산안에서는 투자(Investing in the Middle Class), 발전(Building a Better Canada), 조화(Advancing Reconciliation), 변화(Delivering Real Change)에 대한 4개 주제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을 제시
 - 2019년 예산안 중점정책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지원제도(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교육지원제도(Canada Training Benefit), 의약품보조정책(National Pharmacare) 등임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18-19 총세입은 강한 경제성장세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6.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FY2019-20 총세입은 3,388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4.7%), 이후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조세수입) FY2018-19 조세수입은 전년대비 198억 캐나다달러(7.5%) 증가한 2,829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2.7%)로 전망
 - (개인소득세) 높은 고용률과 노동시장 강세에 기인하여 FY2018-19 개인소득세 수입은 전년대비 92억 캐나다달러(6.0%) 증가한 1,628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향후 전망기간 동안 개인소득세의 증가율은 개인소득세제시스템의 누진적 성격과 실질개인소득의 증가로 명목 GDP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법인세) FY2018-19 법인세 수입은 전년대비 42억 캐나다달러(8.7%) 증가한 520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3.3% 증가 전망
 - 2018년 FES의 사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일시적인 세제조치로 인해 FY2019-20 법인세 수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비거주자 소득세) FY2018-19 비거주자 소득세는 기업이익 증대에 따른 배당금, 이자소득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17억 캐나다달러(21.9%) 증가한 96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0.7% 증가 전망
 - (재화 및 용역세) FY2018-19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전년대비 7.8% 증가할 전망이며, 과세대상 소비전망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관세) FY2018-19 관세수입(Customs import duties)은 일시적인 철강 및 알루미늄 보복관세 조치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27.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과 미국·멕시코·캐나

다 자유무역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으로 향후 5년간 관세 수입은 연평균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기타 소비세) 2018년 예산안의 담배소비세 인상 조치에 기인하여 FY2018-19 기타 소비세(Other Excise Taxes/Duties)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120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
- (고용보험) FY2018-19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 EI) 수입은 2018년 FES 전망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부터 고용보험요율 하향조정이 예상(2019 예산안 조치 제외)
- (기타 세입) FY2018-19 기타 세입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279억 캐나다달러, FY2019-20는 287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표 4> 세입전망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GDP대비 %)

	2017-18	Projection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총 소득세(A)	209.3	224.3	226.5	234.5	244.4	253.2	264.0
개인소득세	153.6	162.8	170.4	177.8	185.0	192.7	201.3
법인세	47.8	52.0	46.3	47.0	49.7	50.7	52.8
비거주자소득세	7.8	9.6	9.7	9.7	9.7	9.8	9.9
총 소비세(B)	53.8	58.5	59.3	60.4	62.3	64.3	66.0
재화 및 용역세	36.8	39.6	40.8	42.1	43.6	45.2	47.0
관세	5.4	6.9	6.3	5.9	6.1	6.4	6.3
기타소비세	11.7	12.0	12.3	12.4	12.6	12.7	12.7
총 조세수입(C=A+B)	263.1	282.9	285.8	294.9	306.6	317.5	330.0
고용보험(D)	21.1	21.4	22.0	22.7	23.5	24.4	25.3
기타 세입(E)	27.0	27.9	28.7	30.3	31.9	33.2	34.5
총 수입(F=C+D+E)	311.2	332.2	338.8	351.4	366.7	380.7	395.5
GDP 대비 비중(%)							
개인소득세	7.2	7.3	7.4	7.5	7.5	7.5	7.6
법인세	2.2	2.3	2.0	2.0	2.0	2.0	2.0
재화 및 용역세	0.4	0.4	0.4	0.4	0.4	0.4	0.4
총 조세수입	12.3	12.7	12.4	12.4	12.4	12.4	12.4
고용보험	1.0	1.0	1.0	1.0	1.0	1.0	0.9
기타 세입	1.3	1.3	1.2	1.3	1.3	1.3	1.3
총 세입	14.5	14.9	14.7	14.8	14.9	14.8	14.8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2019.3.19.) Table A2.5 일부 발췌

나. 세출

□ 총 프로그램지출은 FY2018-19 전년대비 4.9% 증가한 3,235억 캐나다달러, FY2019-20 3,294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FY2018-19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 지출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960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1,215억 캐나다달러 (FY2023-24)까지 꾸준히 증가할 전망

- (노인지원) 노인지원 지출은 FY2018-19 533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노인인구 전망 증가에 기인하여 향후 706억 캐나다달러 (FY2023-24)까지 증가할 전망

· 노인지원지출은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소득보장보조금 및 수당 지급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and Allowance payments)으로 구성되며, 향후 5년간 노인지원지출은 연평균 5.8% 증가할 전망

- (고용보험) FY2018-19 고용보험 지출은 실업률 하락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4.7% 감소한 188억 캐나다달러로 예상되며, 향후 연평균 5.7% 증가할 전망

· 민간부문 전문가들은 2019년 이후 실업률은 6.0%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고용보험 수혜자 수의 완만한 증가를 전망

- (아동지원) FY2018-19 아동복지급여(CCB: Canada Child Benefits)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증가를 반영하여 239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7%, 261억 캐나다달러(FY2023-24)까지 증가할 전망

○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²⁾)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은 FY2018-19 760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3-24에는 881억 캐나다달러까지 증가할 전망

- (캐나다 보건지출) FY2018-19 캐나다 보건지출(Canada Health Transfer: CHT)은 386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3-24 466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캐나다 보건지출은 명목 GDP 성장률의 3년 이동 평균에 따라 증가하며 매년 최소 3% 증가 보장

2) 중앙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출분으로 교부금 성격을 가짐

- (사회보장지출) 사회보장지출(Canada Social Transfer: CST)은 매년 3% 증가를 법에서 규정, FY2018-19 142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3-24 164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연료세 기금) 연료세기금(Gas Tax Fund)은 매년 2% 증가, FY2018-19에는 일회성 이전지출 22억 캐나다달러를 반영하여 43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홈케어및정신보건) 2017예산에서 도입된 지방·주정부 홈케어및정신보건 지원금은 FY2018-19 9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3-24 12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직접 프로그램 지출³⁾) FY2018-19 직접프로그램지출은 1,515억 캐나다달러, FY2023-24에는 1,594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부처 이전지출경비) 부처 이전지출경비는 FY2018-19 541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564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운영비용) 운영비용은 FY2018-19 950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3-24 973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며 장기금리 인상, 연금 및 직원급여 관련 비용 등에 기인하여 연평균 약 3% 증가할 전망

3) 부처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접 프로그램 지출로 구분하여 부처에 예산을 배분

<표 5> 프로그램 지출 전망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GDP대비 %)

	2017-18	Projection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A) (Major Transfers to persons)	93.8	96.0	100.4	105.8	111.4	116.4	121.5
노인지원(Elderly benefits)	50.6	53.3	56.2	59.7	63.3	66.9	70.6
고용보험(EI benefits) ¹⁾	19.7	18.8	19.9	21.5	23.0	24.0	24.8
아동지원(Children's benefits)	23.4	23.9	24.3	24.6	25.1	25.6	26.1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B)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70.5	76.0	76.9	79.6	82.6	85.0	88.1
건강관련(Canada Health Transfer)	37.1	38.6	40.4	41.8	43.3	44.9	46.6
사회보장관련(Canada Social Transfer)	13.7	14.2	14.6	15.0	15.5	15.9	16.4
재정균등화 교부금(Equalization)	18.3	19.0	19.8	20.5	21.3	22.1	22.9
준주 교부금(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3.7	3.8	3.9	4.2	4.3	4.4	4.6
연료세기금(Gas Tax Fund) ²⁾	2.1	4.3	2.2	2.2	2.3	2.3	2.4
홈케어및정신보건 (Home care and mental health)	0.3	0.9	1.1	1.3	1.5	1.2	1.2
기타 재정협정(Other Fiscal Arrangements) ³⁾	-4.7	-4.7	-5.1	-5.3	-5.5	-5.8	-6.0
직접프로그램지출(C) (Direct Program Expenses)	144.0	151.5	152.1	154.2	154.3	156.9	159.4
연료비 반환(Fuel Charge Proceeds Returned)	0.0	0.6	2.6	3.8	4.9	5.7	5.7
기타 이전지출(Other Transfer payments)	47.1	54.1	52.8	55.0	54.5	55.1	56.4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 ⁴⁾	96.8	96.7	96.7	95.4	95.0	96.2	97.3
총 프로그램지출(A+B+C) (Total Program Expenses)	308.3	323.5	329.4	339.7	348.3	358.4	369.1

GDP 대비 비중(%)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4.4	4.3	4.4	4.4	4.5	4.5	4.6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3.3	3.4	3.3	3.3	3.3	3.3	3.3
직접프로그램지출 (Direct Program Expenses)	6.7	6.8	6.6	6.5	6.3	6.1	6.0
총 프로그램지출 (Total Program Expenses)	14.4	14.6	14.3	14.3	14.1	14.0	13.8

주: 1) 실업급여, 질병급여, 출산 및 육아휴직 수당, 간병급여 등이 포함되며 고용보험 지출 중 90%를 차지

2) 지역향상기금(Community Improvement Fund)의 구성항목

3) 퀘벡 주에 대한 청소년 회복 수당, Stand Programs 대체 지불, 법정 보조금, 2005년 해외협약에 따른 지급금 등을 포함

4) 자본상각비용(capital amortization expenses)을 포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2019.3.19.) Table A2.6 일부 발췌

4. 주요 재정정책

가. 중산층에 대한 투자

□ 2019년 예산안에서는 캐나다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중산층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

○ (투자, Investing in the Middle Class) 정부의 이전지출을 기반으로 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지원(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증가, 국가주택전략(National Housing Strategy) 등의 정책 제시

-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지원(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가 주택구매가격의 5~10%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향후 3년간 최대 12억 5천만 캐나다달러를 지원할 예정

* 예를 들어 40만 캐나다달러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CMHC가 5%를 분담함으로써 차용인은 5% 선금과 36만 캐나다달러에 대한 모기지 이자만 부담하면 됨

- 은퇴저축(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인출한도 상향 조정: 주택구매계획(HBP, the Home Buyers' Plan)의 첫 주택 구매시 은퇴저축의 인출한도를 3만 5천 캐나다달러로 조정

- 새로운 교육지원 제도(Canada Training Benefit) 도입: 교육 크레딧(Training Credit), 고용보험 교육지원(EI Training Support Benefit), 새로운 휴직 조항(Leave Provisions)을 도입하여 향후 5년간 17억 캐나다달러이상 투자

· 직업훈련 크레딧(Training Credit): 25~64세의 적격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매년 250 캐나다달러 크레딧을 누적하여 이를 직업훈련비로 사용

· 고용보험 교육지원(EI Training Support Benefit): 2020년 후반에 시행될 예정이며 근로기간 4년마다 최대 4주 동안 소득지원, 1인당 평균 주당 소득의 55% 지급하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보조

· 휴직관련 법 조항(Leave Provisions) 신설: 근로자들이 훈련받는 동안 실업에 대한 불안감을 감당해야하므로 노동법 개정으로 휴직관련 조항을 신설

- 국가 의약품 보조정책(National Pharmacare) 강화: 특히 처방의약품 가격 조정을 위해 캐나다 의약 에이전시(Canadian Drug Agency) 제도를 도입하였으

며, FY2019-20부터 향후 4년간 35백만 캐나다달러를 지원할 예정

- (발전, Building a Better Canada) 기존 캐나다 플랜에 대한 투자(The Investing in Canada Plan)⁴⁾는 FY2020-21까지 4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저렴한 전기요금 및 깨끗한 경제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1,465백만 캐나다달러 투자
 - 모든 국민들에게 초고속 인터넷망 제공을 위해 향후 5년간 717백만 캐나다달러 투자
 - 캐나다 북부 대초원의 물과 토양보호, 폐광산 매립 프로그램, 원주민 커뮤니티 등 캐나다 원주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향후 5년간 56백만 캐나다달러 지원 예정
 - 글로벌 인재 육성, 소기업에 대한 지원 개선, 차세대 기업가에 대한 지원, 캐나다 산림분야 혁신 및 성장 지원, 석유 및 가스분야의 혁신 지원 등 국가 혁신을 위해 향후 5년간 1,123백만 캐나다달러 투자
 - 줄기세포 연구, 브레인 캐나다 재단(Brain Canada Foundation) 지원, 게놈 캐나다(Genome Canada) 등에 캐나다 의료 및 과학 연구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459백만 캐나다달러 투자
- (조화, Advancing Reconciliation) 원주민과 화해 및 조화를 바탕으로 둔 정책을 중심으로 원주민과의 격차해소, 원주민 보호 및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원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원주민 청소년 및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격차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679백만 캐나다달러 지원
 - 원주민과 이누이트 아동(Inuit Children)을 위한 서비스 개선, 토착민 언어보존, 건강하고 안전한 원주민 공동체를 위해 향후 5년간 3,051백만 캐나다달러 지원
- (변화, Delivering Real Change) 건강과 복지, 문화 및 예술을 위한 지원, 캐나다 재향군인 및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 공정한 세금시스템에 중점 투자 (FY2023-24년까지 총 5,406백만 캐나다달러 지원)

4) 캐나다 투자계획(The Investing in Canada Plan)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됨. 2016년 시행한 1단계는 대중 교통 인프라 펀드, 정수 및 폐수관련 펀드,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 프로그램, 주택공급관련 투자 등이 있으며, 2017년부터 시작한 2단계 계획은 캐나다 인프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캐나다 인프라 은행, 재해 완화 기금 등이 있음

- 건강과 복지: 국가치매전략 도입 향후 5년간 50백만 캐나다달러 지원, 오피오이드 중독 대응에 향후 5년간 31백만 캐나다달러 지원, 장기기증 및 이식을 위한 캐나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37백만 캐나다달러 지원 등
- 문화 및 예술지원: 성평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62백만 캐나다달러 지원, 저널리즘 조직을 위한 세금공제 향후 5년간 360백만 캐나다달러 지원, 디지털 뉴스에 대한 세금공제 향후 5년간 138백만 캐나다달러 지원 등
- 캐나다 재향군인 및 가족을 위해 향후 5년간 351백만 캐나다달러 지원

<표 6> 2019년 예산안에서의 부문별 투자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Projection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투자(Investing in People)	0.0	-0.6	-1.3	-1.8	-2.3	-2.4
발전(Building a Better Canada)	-3.2	-0.3	-0.8	-0.8	-0.6	-0.4
조화(Advancing Reconciliation)	-0.9	-0.7	-1.0	-1.0	-0.6	-0.6
변화(Delivering Real Change)	-0.1	-1.7	-1.6	-0.8	-0.5	-0.6
기타(Other Budget 2019 Investment)	0.0	-0.7	-0.9	1.6	0.6	1.2
총 투자	-4.2	-4.0	-5.7	-2.7	-3.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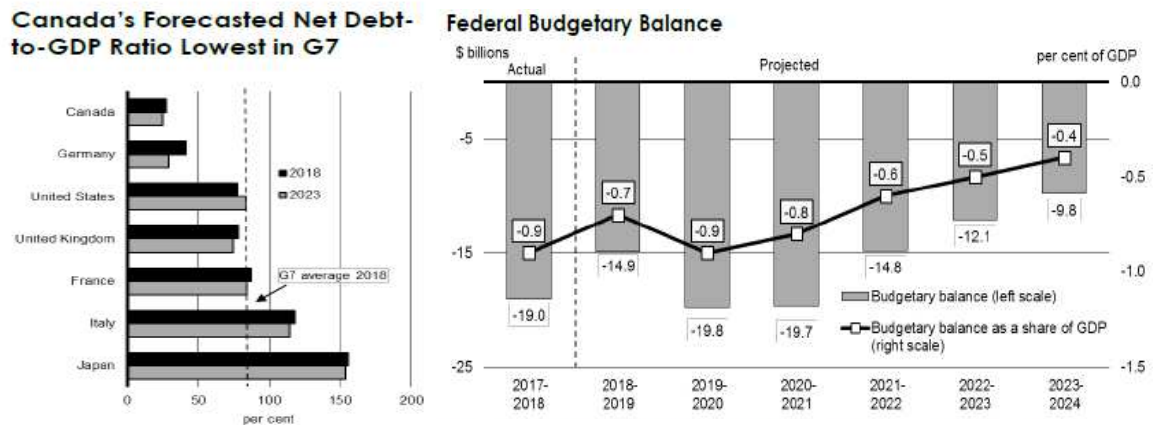
주: 1. +는 투자 증가분, -는 투자 감소분을 의미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2019.3.19.), Table 1

나. 재정건전화

- FY2019-20 예산안에서 적자재정을 편성했으나 2018년 FES의 전망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으며 향후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비율을 감소시킬 계획을 발표
 - IMF 발표(2018.1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캐나다의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G7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
 - 캐나다 정부는 현재 및 미래세대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위해 낮은 채무를 유지할 계획
 - 재정적자는 GDP 대비 FY2018-19 0.7%에서 FY2023-24 0.4% 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

[그림 1] G7 국가의 GDP 대비 순채무 및 캐나다 재정수지 전망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2019.3.19.), Chart 3, 4

□ FY2019-20 채무관리전략(Debt Management Strategy)⁵⁾

- FY2019-20 연말기준 총시장채무⁶⁾는 7,540억 캐나다달러로 전년대비 4.3% 증가할 전망
- (유가증권 및 단기국채) FY2019-20 유가증권은 약 5,830억 캐나다달러, FY2019-20 단기국채는 약 1,510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소매채무 및 외채) FY2019-20 소매채무는 약 10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9-20 외채는 약 190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표 7> FY2019-20 시장채무(Market Debt)

(단위: 연말기준, 십억 캐나다달러)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추정)	2019-20 (전망)
유가증권(Domestic bonds)	504	536	576	574	583
단기국채(Treasury bills)	138	137	111	131	151
외채(Foreign debt)	22	18	16	16	19
소매채무(Retail debt)	5	5	3	2	1
총 시장채무	670	695	705	723	754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2019.3.19.) Table A4.3

5) 채무관리전략에서는 캐나다 정부의 국내외 채무, 기타 금융부채 및 관련자산의 관리에 대한 목표·전략·계획을 설정

6) 캐나다의 총채무(Gross debt) 중 시장채무(Market debt)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채무관리전략에서는 시장채무관리를 주로 다룸. 예산안 및 재무결산상 채무지표는 연방채무(누적 기준)이나, 예산안에서는 이와 더불어 시장채무(유가증권, 단기국채, 외채, 소매채무로 구성)를 중심으로 중기 채무전략을 보여줌.